

“학생들의 잠재 능력 키워 긍정 에너지 발산 돕고파”

도내 향토기업 정석케미칼 전주대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전북 대표 향토기업 정석케미칼이 최근 전주대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정석케미칼은 1990년 완주산업단지에서 자리잡은 향토기업으로 페인트, 방수제,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는 우수 중견기업이다. 정석케미칼은 꾸준히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사회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전북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장학사업을 진행 중이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이호인 총장과 김용현 대표이사, 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이사는 “전주대의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고 잠재 능력을 키워 자아를 실현하고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이호인 총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학교를 사랑해주고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신경 써



전북 대표 향토기업 정석케미칼이 최근 전주대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주대 권수태 기획처장, 주송 LINC+사업단장, 양병선 부총장, 이호인 총장, 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이사, 정석케미칼 인기성 총무팀장, 정석케미칼 조광현 대리, 전주대 한남희 총무처장.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실용 인재를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송천정보통신학교, 소년원 최초 드론자격증 취득

송천정보통신학교(전주소년원, 원장 오연호)는 소년원 최초로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이하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송천정보통신학교에 따르면 지난 12일 고등반에 재학중인 김모(19세)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했다.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항공역학, 항공기상, 항공법규 등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비행시험과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한 김모군은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출원 후 드론관련 대학교에 진학하여 드론기술을 더욱더 익혀 4차산업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연호 교장은 “그동안 드론교육을 지원해준 전주시청과 (주)원탑드론파크에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준 교사와 학생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무진장소방서, 주택화재 예방 대책 수립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위 대책의 목적은 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서민생활 안전과 재산취약계층 보호 및 주택화재의 원천적 발생 억제에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으로 인명피해 저감에 대한 의의가 있다.

새부 계획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지속 추진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 지킴이 지정·운영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주택 화재예방교육 강화 등이 있다.

또,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한 경우 소화가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 지급하는 특별보상제를 운영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 모두가 주택화재 예방에 동참하며 인명피해 저감 대책에 기여하는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 외출 시 가스레인지 및 전열기구 전원 차단하고 각 가정마다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인식이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장수=고관호 기자

인사

전주시

- ◇승진 내정 ▲김철용 생활복지과 ▲김현정 여성가족과 ▲유경희 수질관리과 ▲전인수 도시재생과 ▲황서연 자원순환과 ▲김두기 도시재생과 ▲신승희 보건행정과 ▲임경진 자전거점과

▶▶ 알려드립니다 ◀◀

제52차 전주영생고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식

일시: 2월 16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본관 3층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용진중 2학년 학생 대상 자아성장 교육통합 프로젝트 추진

용진중학교(교장 고승식)는 2학년 학생(29명, 전체)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존중, 딱 좋다!’를 주제로 자아성장 교육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상호작용, 집단작업, 역할나누기, 미션 수행, 영상작업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일부터, 스스로 찾아 기획할 수 있는 주도적 힘을 배양하여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모든 과정을 학교 교과담당 선생님과 함께 함으로써 교사-학생 간에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생동감이 있고, 즐거운 교실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지만 학급 인원이 29명으로 학생들은 과밀에 따른 스트레스,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 환경 하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추진한 선생님(오명자)은 “다양한 학생들이 하나의 교실에서 갈등 없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해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하면 훨씬 더 쉽고 행복해 진다는 것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군 공도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수군 공도연합회(회장 김경곤)는 13일 장수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새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경곤 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해주신 공도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전해주시 성금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경찰, 올 상반기 치안종합성과 보고회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13일 각 과장 및 계·팀장, 파출소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치안종합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각종 정책지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 상반기 지속 가능한 정책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치안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불안요인을 선제적·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정도를 검토하는 등 치안성과 향상 대책과 방향설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또한 각 부서별로 현황 및 중점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병원 ‘희귀질환 전북권 거점센터’ 선정

전문클리닉·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희귀질환 전북권 거점센터’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사업은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공모를 진행한 사업이다.

또한, 희귀질환 전북권 거점센터로 선정된 전북대병원에서는 이달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희귀질환자들은 그동안 전문가 부족과 의료기관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진단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고 진단 이후에도 치료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희귀질환 관련 인력 교육지원,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진단·관리를 위한 희귀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희귀질환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진료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은 “그동안 희귀질환자들이 전문가 부족과 의료기관 수도권 집중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면서 “앞으로 희귀 질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거점 진료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귀질환 전북권 거점센터 지정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의료서비스와 삶의 질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남원경찰서, 자살기도자 구조 유공 표창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자살기도자 구조 유공을 세운 주성파출소 최규승 경위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은 최 경위가 관내 주변을 철저히 수색해 자살기도자가 차량 내에서 번개탄으로 의식이 없는 것을 신속히 구조한 공로를 표창한 것이다.

수상 소감에서 최 경위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는데 표창을 받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대산파출소, 범죄예방 홍보활동 전개

남원시 대산파출소(소장 김순호)는 지난 12일 대산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부임 인사 겸 교통사고예방 협조 등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는 날씨가 평년보다 빨리 풀려 다른 해에 비해 일찍 농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농사를 준비로 주민들의 활동량과 교통량이 증가해 교통사고위험이 늘어나는 시점이다.

통계적으로 도내 교통 사망자 39%가 (보행자 7/ 전체 20명) 보행 중 발생하고 시간대는 오후 14시 이후 85%(6명), 노인보행자 71%(5명) 중점 발생하는 것 또한 날씨와 연관성이 높다.

특히, 대산면은 골짜기가 2곳, 북남원IC 등이 있어 타 지역보다 차량통행이 많으며, 최근 인근 골짜기 시설화장공사 등에 따라 대형차량 운행이 많은 곳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 경찰발전위 정기회의... 유공 경찰관 시상식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 경찰발전위원회(회장 백성기)는 지난 12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과장 및 무주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2018년 하반기 자랑스러운 무주경찰에 선발된 안성파출소 김중섭 경감(112신고 총력대응 및 농·축산물 절도예방 유공), 경무과 김도연 순경(각종 행사 관리 및 초과관리 업무처리 유공) 2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경찰·경찰발전위 간담회 개최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12일 오후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경찰발전위원장(위원장 함홍식)을 비롯한 각 과장, 경찰발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담한 경찰서장·과장과 경찰발전위원회 위원과의 상현례를 시작으로 고창경찰의 2018년 업무성과 결과와 2019년 주요 추진업무를 공유하고, 경찰발전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정환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고창경찰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책 추진으로 군민을 만족시키는 경찰활동”을 펼쳐기로 하고, 함홍식 경찰발전위원장은 “지역적인 안정과 민·경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